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가정예배

포이에마예수교회
POIEMA JESUS CHURCH

인도자: 가족 중에서
신앙의 가장

예배의부름 …… **다 함 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다 함 께**

기 도 …… **가족중에서**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21장 4~11절**…… **인 도 자**

말 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인 도 자**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315장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함 께**

온가족기도 …… **다 함 께**

☞ 함께 예배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 온 가족이 함께 삶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으로 삼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주님의기도 ……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뵈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11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 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설교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열중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3년 동안 함께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을 보고서, 저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첫 마음, 그리고 기대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지만, 그들 중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고기 잡는 실력이 녹이 슬었어도,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의 별명 중 하나가 '물 반 고기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수가 **'백쉰세 마리'**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기에 갑자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은 위치나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특별히 오른손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왼손은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오른손, 왼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는 **"나의 전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 역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지난밤, 네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니. 그래

서 무엇을 건져 올렸니. 아무것도 없지 않든. 또 지난 네 인생길에서 네 힘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무엇을 건져 올렸니.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 아니든? 이제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여라."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 올리게 하시는 물고기들(영적이든, 물질적이든)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큰 물고기를 백쉰 세 마리를 잡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에 집중했다면, 잡은 생선으로 마을 사람들과 파티를 열었다든지, 시장에 팔았다든지 등의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잡게 하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 삶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후 나오는 '사도행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잡게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무엇을 건져 올리게 하시든지,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족들의 삶은 매일 풍성한 한가위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 그리고 빈그물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이 더욱 주님의 오른손을, 주님의 얼굴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훗날, 오늘의 시간을 바라볼 때, 분명히 풍성해지는 시간,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 가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한가위와 같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